

전학년 성적표·수상 경력 등 일목요연하게

■대입지원서 작성

대부분 대학의 조기지원 마감일이 10월 말이다. 11월1일부터 UC 지원서 접수가 시작되며 마감일이 11월 말이다. 그리고 12월에는 많은 대학들의 정시지원이 있다. 대입지원에 있어서 부모보다 영어에 능통한 자녀들이 자신이 혼자 할 수 있다며 도움의 손길을 벌리려 하지 않다가 낭패를 본 예가 허다하다. 답답한 마음에 도와주고 싶지만 잘 알지 못하고 나서서 것 같아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부모들도 있다. 대입지원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과연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가?

여름방학 동안 준비를 시작하는 시니어들도 있지만 여름방학 동안 캠프다 인턴십이다 하여 시작도 못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다. 또 여름방학 동안 해외 봉사나 프로젝트 계획들로 바쁘게 보내느라 대입 지원서에 대한 준비는 손도 대지 못한 시니어들도 많을 것이다. 지원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예전에 보던 포맷이 아니라 당황한 시니어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한다.

■지원서 작성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보자.

1. 자녀가 다니는 고교에서 전 학년 성적표를 떼어두어야 한다. 대입지원서에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또 학점은 어떻게 나왔는지를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혹시 실패한 과목이 있으면 반드시 메이컵을 해두어야 한다. 대학입학에 필요한 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했는지 살펴보자. 대학입학 필수과목이 UC의 경우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수상 경력이나 과외활동들과 더불어 여름방학 동안 참여했던 인턴십도 포함하여 도표를 만들어 정리하라. 도표는 학년 별로 정리하며 과외활동이나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과 그 내용, 포지션, 한 주에 몇 시간씩 1년에 몇 주를 참여했는지 그리고 상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실적들을



대학을 선택하기 전에 준비사항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학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포함해서 작성하라. 이때 부모님들이 이런 자료들을 자녀와 함께 정리하며 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빠짐없이 모든 것을 정리했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이력서 형식으로 작성한 후 컴퓨터에 저장해 두라. 자녀의 이메일 주소가 너무 우스꽝스럽고 조잡스러운 이름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라.

일단 10월부터 시작되는 대학입학 지원서 작성을 위하여 고교시절을 보낸 학생용 이력서와 에세이를 준비를 도와주도록 해야 한다. 이력서는 직장을 구할 때 필요한 포맷이었지만 대학 지원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이력서는 그 포맷이 약간 다르

다고 할 수 있다. 이력서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 먼저 자녀가 그동안 살아온 고교 시절의 업적들에 대해서 정리하라. 공식적인 이력서를 만드는 기본 구성을 아카데미한 활동과 포지션 수상 실적, 과외 활동, 아카데미 레코 그리고 여름방학 일한 경험 등 5가지로 나누어 정리하라. 어떤 학생은 음악 및 미술 등의 실적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학생은 뛰어난 스포츠 실적이 있을 것이니 이것도 따로 구분하여 정리하라.

예를 들면 특별한 오케스트라의 멤버이며 카네기 홀에서 연주한 경험이 있다면 이것도 날짜를 기억하여 정리해 둘 것이며 만약 자신의 음악이나 포트폴리오를 CD를 만들어 첨부할 예정이라면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하라. 어떤 학생은 주 대회 이상의 국제 경시대회나 전국대회에서 수상을 했다면 이것도 도표를 만들어 보관하라. 예를 들면 지역사회 봉사 활동의 실적이 있다면 또는 구체적으로 'Haiti 위기재난 구조활동'을 비롯한 국제적인 봉사활동이 있다면 이력서에서 첫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첫 번째 항목으로 넣는 것도 고려하라.

3. 아카데미 레코드에는 지원자의 학교 평균성적 AP/APB 등의 수강한 과목 수 고교시절 수강한 대학코스 SAT 또는 ACT 등의 표준시험 점수를

포함한다. 따라서 모든 표준고사 성적표를 준비해 두라. 만약 SAT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10월, 11월, 12월 테스트가 남아 있고 이 성적도 카운트를 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력서에는 도표로 만든 기록보다 좀 더 세밀한 설명이 필요하다. 수상 경력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기재하라. 몇 명이 대회에 참가해서 몇 명이 수상했는지를 기록함으로써 대학 입학사정관이 자녀가 참여했던 대회의 우수성을 인식하도록 하라. 또한 이렇게 만든 이력서는 자녀가 재학 중인 고교의 카운슬러에게 제출하여 자녀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있도록 해야 실제 입학 지원서를 쓸 때 자녀에 대해 세밀하게 표현해 줄 수 있게 된다.

포함한다. 따라서 모든 표준고사 성적표를 준비해 두라.

만약 SAT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10월, 11월, 12월 테스트가 남아 있고 이 성적도 카운트를 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력서에는 도표로 만든 기록보다 좀 더 세밀한 설명이 필요하다. 수상 경력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기재하라. 몇 명이 대회에 참가해서 몇 명이 수상했는지를 기록함으로써 대학 입학사정관이 자녀가 참여했던 대회의 우수성을 인식하도록 하라.

또한 이렇게 만든 이력서는 자녀가 재학 중인 고교의 카운슬러에게 제출하여 자녀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있도록 해야 실제 입학 지원서를 쓸 때 자녀에 대해 세밀하게 표현해 줄 수 있게 된다.

4. 추천서 써주실 선생님을 찾아 확인해 두도록 해야 한다.

가능하면 코어 서브젝트를 가르쳤던 11학년 때 성적이 좋았던 과목의 선생님, 그리고 자신을 가장 잘 알고 계신 선생님께 부탁해 두자. 적어도 2주 정도의 여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자.

5. 각 대학의 마감일을 체크하라.

만약 조기지원을 하는 대학이라면 조기지원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조기지원에는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 얼리 액션, 얼리 디시전이 있다.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은 한 개의 대학만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바인딩이 없다. 얼리 액션은 다른 대학(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을 제외한)을 같이 지원할 수 있으며 바인딩이 없다. 얼리 디시전은 다른 얼리 액션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있지만 합격할 경우 반드시 진학해야 한다.

대학은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다. 하지만 거쳐야 하는 인생의 새로운 챕터라고 본다. 4년간의 자신의 가장 활발한 인생의 시간들을 보낼 그 곳, 나의 배우자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내가 평생 가지게 될 직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일찍부터 그것을 계획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허덕허덕 바쁘고 지친 마음으로 할 수 없이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길을 택하느냐는 부모와 함께 계획을 세워 나갈 자녀에게 달려있다.

■에세이 주제 선정과 전문가 상담

■에세이 주제 선정을 해야 한다

UC계열은 정해진 두 개의 에세이 주제로 써야 한다. 하나는 자신의 출신환경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한 개의 에세이 주제는 현재의 자기 모습에 관한 것이다. 두개의 에세이를 합쳐 1,000자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통지원서의 토픽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토픽으로 해야 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토픽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에세이는 지원서

에는 나타나지 않는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좋은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풍성한 고교 시절을 보내면 도움이 된다. 이제 UC계열 대학도 에세이의 중요성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매년 UC에 지원하는 수가 늘어가는 것을 보면 경쟁력 있는 에세이가 얼마나 중요인지 짐작이 될 것이다.

■대학 선택을 위해 상담 선생님을 만나라

가능하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도 좋다. 대학 지원은 합격할 가능성 10% 정도인 대학 3개, 30~40% 정도인 대학 3개, 60% 정도인 대학 3개, 80% 이상 합격률인 대학 3개 정도면 좋다. 총 8개 대학에서 12개 정도의 대학에 지원할 것을 추천한다. 일부 학생들은 20개 대학 이상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이는 각 대학 지원서에 최선을 다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결정하기 바란다.



제니 김
(존스 홉킨스대학 교육학석사)
시니어 이드바이저
(어드미션 마스터즈)
1-855-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44th Children's Music Competition

남가주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래 음악가들의 등용문 ~ 어린이 음악경연대회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가장 전통 있는 한국일보 어린이 음악경연대회가 올해로 44주년을 맞이합니다.

본보 창간 이듬해부터 매년 열려 온 이 대회는 43년여 동안 많은 우수 연주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주류 음악계에 진출해 주목받는 음악가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어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한인어린이 누구나 출전 가능하며 음악가를 꿈꾸는 한인 2세 어린이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올해도 한미은행의 특별협찬과 함께 한미은행장 상을 마련하여 장학금과 트로피도 전달됩니다. 음악가의 꿈을 키워나가는 어린이들에게 뜻 깊은 경험이 될 본 대회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2014년 11월 22일 (토) 오전 9:00 ~ 오후 5:00
- 장 소 : LA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 참가부문 : 피아노부문, 현악부문 (바이올린, 첼로)
Division I (초등부) : 8세 - 11세
Division II (중등부) : 12세 - 14세 * 2014년 11월 22일 생일 기준
- 시 상 : 각 부문 대상 - 상금과 트로피
입상 - 트로피, 참가자 - 참가트로피

- 신청마감 : 2014년 11월 14일 (금)
- 신청서류 : 1) 본보 소정양식
2) 출생증명서 또는 여권
- 신 청 비 : \$70
- 신청문의 : 한국일보 사업국
Tel. (323)692-2068, 2187
Fax. (323)692-2137
e-mail : reneroe@koreatimes.com

* 자문에 걸은 부문 1위 입상자는 제외됩니다.

연주곡 * Requirement Music for The Competition

• Piano	Division I Play any original piano solo (except Concertos) piece or One fast movement from any Piano Sonatas, composed in any musical period. And the length of the piece should be less than seven minutes long.	Division II Play any original piano solo piece (except Concertos) or One fast movement from any Piano Sonatas, composed in any musical period. And the length of the piece should be less than ten minutes long.
• Strings (Violin / Cello)	Division I Play any original Violin/Cello solo piece, composed in any musical period. And the length of the piece should be less than seven minutes long.	Division II Play any original Violin/Cello solo piece, composed in any musical period. And the length of the piece should be less than ten minutes long.

* The contestant plays only one repertoire at the competition.

• 주최 : 한국일보 • 특별협찬 : Hanmi Bank • 후원 : 안스피아노, LA Violin Shop